

어떤 배신

김 사 연

인천 만수당약국, 한국문인협회 회원

나의 약국을 자주 찾는 환자에 게 배신을 당했다. 평소 연민의 정을 아낌없이 베풀던 할머니라서 더욱 울적하다.

내가 어릴 적 빛바랜 광목으로 울타리를 친 가설 극장의 무대가 떠오른다. 그때의 연극 내용은 거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운다'는 신파극이었다. 차라리 그런 순애보적인 배신이라면 낭만에 잠겨볼 여유라도 있어서 좋다. 하지만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가까운 환자에게 당한 배신으로 인간이 두렵기까지 하다.

그 노인은 청상과부로 외동딸을 키운 후, 저물어 가는 인생을 사위에게 기대고 사는 분이다. 삶이 외롭다는 사치스런 투정보다 신경통의 진통이 더 절박했던 가여운 분이다.

노인이 약국에 올 때면 내 어린 시절의 전부인 친할머니가 생각났다.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리움과 회한을 달래기 위해 나는 친할머니를 대하듯 친절과 성의를 다해 약을 지어주려 왔었다.

며칠 전 한가한 오후였다. 금테 안경을 걸친 사내와 곱슬머리의 중년 부인이 약국에 들어와 약사를 찾았다. 사내는 약화 사고가 났다며 다짜고짜 언성부터 높였다. 내가 지어준 약을 먹고 장모의 다리가 마비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자신의 등에 업혀 5일간

이나 통원치료를 받고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약물 부작용이란 진단이 담당 의사의 소견임을 내세우며 기고만장했다.

컴퓨터에 입력된 처방을 확인해 보았다. 한

지는 약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만월 현상을 보인 할머니였다. 만월 현상이란 오이씨(種子)모양의 신경통약인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오래 복용했을 경우 입맛이 당기고 뼈가 삭으며 온몸이 퉁퉁 부어 얼굴이 달덩이 같아지는 증상이다.

맨 처음 나의 약국을 찾던 날, 노인은 가까운 약국을 놔두고 굳이 길을 건너 왔음을 강조했다. 그런 경우 감사의 마음보다는 미심쩍은 경계심을 두게 마련이다. 대개 약을 강하게 조제해 달라거나 자신이 단골임을 강조하는 환자일수록 뒤탈이 많기 때문이다.

해서 이 노인의 조제록 글자 하나 하나까지 신경을 썼다고 그런 인연으로 은연중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사이



가 되었다. 부작용과 특수 체질을 감안하여 일반 환자보다 비싼 약품을 처방하기까지 했다.

이런 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위와 딸은 무작정 나를 욕박질렀다. 물론 그들에게 몇 푼의 치료비를 생각해주면 입막음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하나 편하자고 그럴 수는 없었다.

과거, 약화 사고를 당한 약사들은 지나치게 주위를 의식하며 우유부단한 대처를 했다. 때문에 약사와의 말썽거리는 시비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왔음을 약사회 회무를 맡으면서 깨달았다.

이번 사건 역시 나의 행동 여하에 따라 선례로 남을 것만 같아 보상 문제는 내용을 확인한 후 연락하기로

하고 그들을 돌려 보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억장이 터질 노릇이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더라고 전문직 의사가 어떻게 무지몽매한 환자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더욱이 처방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약물 부작용이라는 단정을 내리다니...

전화부를 뒤져 그들이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의원에 다이얼을 돌렸다. 그 의원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울분의 목소리를 애써 달래며 담당의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해주었다.

"예? 약물 부작용이라고 그랬다고요? 과거에 신경통 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그 부작용으로 몸이 부었으니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그 할머니는 혼자서 멀쩡히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마비된 다리를 어떻게 5일 만에 완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통증이 심해 약국을 찾았을 것이고 약사님이 조제한 약이 약하니까 병원을 찾아온 것 뿐인데,

치료비를 왜 약사님이 변상합니까? 그런 식이라면 어떻게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하겠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마음을 가라앉힌 후 할머니를 약국으로 불렀다. 노인은 신경통의 통증마저 망각한 채 뛰다시피 달려와 치료비를 얼마나 줄 것이냐고 다그쳤다.

가슴이 콩콩 뿔수록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방금 전 담당의사와 나눈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나 역시 취조하듯 다그치지 않았다. 죄는 미웠지만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 찌든 노인의 모습이 애처로웠기 때문이다.

한참 후, 노인은 고해성사를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신경통은 빨리 낫지 않고 딸과 사위는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기에 더 아픈 시늉을 하며 병원에 갈 돈을 달랬다. 딸과 사위는 약국 약을 먹고 더 아프면 약사에게 돈을 받아내야지 왜 제게 돈을 달래냐며 펄쩍 뛰더라.

노인의 병은 청상과부로 딸자식을 키우느라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다니 생긴 것이었다. 홀려간 청춘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서러워 버스를 타고 방향하다가 찾아간 곳이 그 의원이었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의사가 약물 부작용이란 소리를 했다고 딸에게 전해주었다. 사위는 내가 지어준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알아듣고 무릎을 치더라. 노인의 약값을 톡톡히 받아준다는 사위의 그럴 듯한 꼬임에 넘어가 본의 아니게 다리가 마비됐다는 연극을 꾸며다며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육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던 할머니에게 당한 배신이었지만 그 노인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낄 뿐이다. 죽을 죄나 지은 듯 고개 숙인 노인의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자리 마른자리 기려 키운 딸자식으로부터 당한 배신의 눈물이었으리라. **72**

해외의학정보

남녀 건강상 기본차이 10가지 발표

여성은 남성보다 성병, 우울증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등 기본적인 건강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여성 지위향상협회 산하 여성보건연구소는 여성보건에 관한 연구와 임상실험의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녀간의 건강상 기본차이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병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병에 걸릴 위험이 2배, 에

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대자와의 성적 접촉에서 HIV에 감염될 위험이 10배 높다. ▲우울증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2~3배 높다. 부분적인 이유는 여성의 뇌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을 적게 분비하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 골다공증 환자 중 80%가 여성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골밀도(骨密度) 저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폐암(肺癌) : 같이 담배를

피워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20~70% 높다.

▲심장병 : 여성은 제 1차 심장마비 발생 후 1년 안에 두 번째 심장마비가 일어 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마취 : 여성은 남성보다 마취에서 빨리 깨어난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남성이 평균 11분인데 비해 여성은 7분이다.

▲자가면역질환 :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류마티스

성 관절염, 루푸수(狼瘡) 같은 자가면역질환 환자는 4명중 3명이 여성이다.

▲알코올 : 같은 양의 술을 마셨어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통증 : 아편제제(製劑)와 같은 일부 진통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효과가 있다.

▲약물반응 :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같은 일반적인 약도 그

반응과 부작용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72**